

#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의 意味와 病理 및 治療에 대한 考察

반덕진 · 박성식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The Study of Throat Disease's Concept, Pathology and Medical treatment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Ban Duk-Jin,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 1. Objectives

We analyze throat disease focused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find out throat disease's concept, pathology and medical treatment.

#### 2. Methods

We consider term, conception, symptoms, mechanism and medical treatment of throat disease in 『Dongyisebowon』, 『Dongyisebowon Gabogubon』, 『Dongyisebowon sasangchobongwon』, 『Dongyisangshinpyun』 and 『Dongmuyooogo』

#### 3. Results and conclusions

- 1) We find out throat disease's some concept that are referred variety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2) Throat disease's pathology are different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Soeumin throat disease belong to taeum syndrome and soeum syndrome, in Soyangin throat disease belong to chest heat syndrome, in Taeumin throat disease belong to dry heat syndrome, in Taeyangin throat disease belong to Yul gyuk syndrome
- 3)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medical treatment of throat disease focus on not throat disease but human being and medical treatment of throat disease are almost internal treatment but in Soyangin and Taeumin, medical treatment of throat disease are external treatment.

**Key Words** : Chroat Disease, Concept, Pathology and Medical Treatmen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I. 緒 論

咽喉는 胃의 上管으로서 水穀의 通路이며 地氣를 主管하고 地氣는 또한 喘으로 통한다<sup>1)</sup>.

『東醫寶鑑』<sup>2)</sup>에서는 "喉는 통한다는 말이고, 咽은 삼킨다는 말이다. 咽은 三脘과 연결되고 위와 통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넘길 수 있다, 喉는 五臟과 통해 있으면서 肺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다. 숨쉬는 곳이 喉이고,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 咽이다. 이와 같이 한계가 아주 명확하다!"<sup>1)</sup>고 하여 咽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咽喉疾患에 대하여 『東醫寶鑑』<sup>2)</sup>과 『醫學心悟』<sup>3)</sup>등에서는 주로 火로 인한 病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았으며, 咽喉病의 종류에 대하여 『醫學心悟』<sup>3)</sup>에서 喉痺, 纏喉風, 走馬喉風, 雙單乳蛾, 喉疔, 喉瘡, 喉瘤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咽喉疾患에 대한 연구로는 김<sup>6)</sup>의 咽喉痛에 대한 문헌 연구, 황<sup>7)</sup>의 咽喉疾患의 鍼灸治療에 대한 문헌 연구, 정<sup>8)</sup>의 急性 喉頭炎의 문헌 연구, 손<sup>9)</sup>의 喉痺에 대한 문헌 연구, 송<sup>10)</sup>의 喉痺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의 문헌 연구, 김<sup>1)</sup>의 咽喉疾患에 대한 臨床의 研究 등이 있었다.

四象醫學에서는 咽喉疾患에 대하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4)</sup>에서는 "中風, 關格, 咽喉病, 癰疽와 같은 제반 急病은 시기를 놓치기가 쉬우므로 신속하게 침과 약을 사용하여 맹렬하고 빠른 것은 반드시 적중시켜야 한다"<sup>2)</sup>고 하여 咽喉疾患에 대하여 急病으로 인식하였으며, 『東武遺稿』<sup>5)</sup>에서는 "인후병에는 생부자를 입에 머금고 있으면 아주 좋다"<sup>3)</sup>고 하여 咽喉疾患의 치료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sup>11)</sup>,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4)</sup>, 『東醫四象新篇』<sup>13)</sup>, 『東武遺稿』<sup>5)</sup> 등에서 咽喉病, 咽喉

證, 咽喉痛, 咽喉腫痛, 咽喉腫, 纏喉風, 喉痺 등으로 四象人別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咽喉疾患의 病證, 症狀, 특정 疾患 등 중 어떤 의미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저자는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의 意味와 病理 및 治療에 대한 연구를 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의 意味

#### 1) 咽喉病을 언급한 조문

『東醫壽世保元』 11에서 "背癰 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 등은 병이 든 때에 벌써 위험한 중세가 된 것이고<sup>4)</sup>..."라 하였고, "일찍이 少陽인이 咽喉病과 눈병과 콧병과 다리 저린 병에 수을 연 3~4일 쓰되 혹은 훈비하고 혹은 내복하여 병이 낫는 것을 본 일이 있다...한 사람이 咽喉病에 훈비하는데, 첫날에 2대를 태우고 이튿날에 한 대를 태워쓰는데 그날 밤에 방이 너무 더워서 바람을 쏘이고 갑자기 죽었다<sup>5)</sup>..."라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流注丹毒, 發斑, 陽毒, 咽喉病, 黃疸, 얼굴 눈 입 코 치아 등의 병은 병이 든 날로부터 모두 중증이 된 것이다<sup>6)</sup>..."라 하였으며, "얼굴, 눈, 입, 코, 인후, 치아의 병은 중소증이 변한 증상이다."라 하였고, 水銀熏鼻方의 설명 중 "인후 이상의 얼굴, 눈, 코, 입의 병에는 1개의 심지에 불을 붙여서 코에 쏘이면 그 효과가 귀신처럼 뛰어나다<sup>7)</sup>..."라 하였다.

4)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背癰 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 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 證也

5) 『東醫壽世保元』 嘗見 少陽人 咽喉病 眼鼻病 脚痺 病 用水銀 連三四日 或熏鼻 或內服 病愈者... 一人 咽喉病 熏鼻 初日二條 翌日一條 當夜 燄室觸風而 猝死...

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流注丹毒發斑陽毒咽喉黃疸面目口鼻牙齒之病 成病之日 皆爲重證也

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咽喉以上面目鼻口之病 用一炷熏鼻則功效如神

1) 『東醫寶鑑』 「外形篇 咽喉」 喉者候也咽者嚥也咽接 三脘以通胃故以之臟物喉通五藏以系肺故以之候氣 氣喉穀咽皎然明白<得效>

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六統」 中風 關格 咽喉 癰疽 諸般急病 時刻易失 速鍼藥之 猛 捷者必中之...

3) 『東武遺稿』 「病症各論」 咽喉病 生附子含口 則妙 也.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4</sup>에서는 "中風, 關格, 咽喉病, 癰疽, 溫疫과 같은 천행에서 오는 모든 질병은 늙은이, 젊은이, 장년층을 막론하고 명맥이 뇌옥중분에 있는 사람은 의약이 있어서 급히 구하면 연달아 살릴 수 있지만, 의약이 없어서 급히 구하지 못하면 매번 죽게 된다<sup>8</sup>)..."고 하였으며, "中風, 關格, 咽喉病, 癰疽와 같은 제반急病은 시기를 놓치기가 쉬우므로 신속하게 침과 약을 사용하여 맹렬하고 빠른 것은 반드시 적중시켜야 한다<sup>9</sup>)..."라 하였다.

『東武遺稿』에서 "咽喉病에는 생부자를 입에 머금고 있으면 아주 좋다<sup>10</sup>."라 하였다.

## 2) 咽喉證을 언급한 조문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少陰人은 咽喉證이 있으면 그 병이 대단히 중하면서도 장기적 질환으로 변하니 등한히 보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蔘桂八物湯을 쓰며 혹은 노루의 간이나 또는 金砂酒를 쓸 것이다."라 하였다.

『東醫四象新篇』<sup>13</sup>에서 "少陰人에게 咽喉證이 있으면 그 병이 대단히 중하면서도 완만한 병으로 된다<sup>11</sup>."고 하였고, 桔梗黃芩湯이 咽喉證의 치료한다<sup>12</sup>고 하였다.

『東武遺稿』<sup>5</sup>에서 "少陽人의 咽喉證이나 혹은 여러 가지 중창은 그 병세를 관찰하여 변비가 있으면 天一丸으로 설사시키고 외감 증상이 있으면 清熱藥으로 열을 없애어 그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라 하였다.

## 3) 咽喉痛을 언급한 조문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咽喉痛에는 마땅히 독삼관계이중탕을 쓸 것이다<sup>13</sup>."라 하였고, "내가

본 바에 의하면 한 少陰人의 咽喉痛이 1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는데, 어떤 의사가 금사주를 먹을 것을 가르쳐서 즉시 효과를 보았다<sup>14</sup>."라 하였으며, "주평이 말하기를 陽毒은 얼굴이 붉고 아롱아롱한 비단 무늬와 같은 발진이 돋으며 咽喉痛하고 고름과 피를 뱉는다<sup>15</sup>."라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咽喉痛은 또한 少陰證의 등속이다<sup>16</sup>."라 하였다.

『東醫四象新篇』<sup>13</sup>에서 "少陰人의 咽喉痛이 일년이 지나도록 낫지 않았는데 금사주를 먹어서 즉시 효과를 보았다<sup>17</sup>."라 하였고, "葛根解肌湯이 咽喉痛 등을 치료한다<sup>18</sup>."고 하였으며, "金蛇酒가 咽喉痛을 치료한다<sup>19</sup>."라고 하였다.

『東武遺稿』<sup>5</sup>에서 "少陽人 어른이 脈이 洪, 實하면서 數하고 혹은 咽喉痛하고, 혹은 자주 머리와 얼굴, 胸膈에 癰疽가 생기고 風熱이 크게 盛하면 涼膈散 혹은 防風通聖散을 써서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만일 느슨하게 방치해두면 아마도 다른 병을 일으켜 거의 죽게 될 것이다.<sup>20</sup>"라 하였다.

## 4) 咽喉腫痛을 언급한 조문

『東醫壽世保元』 「肝受熱裏熱病論」<sup>11</sup>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太陰人 外感腦頰病論」<sup>12</sup>에서 "만력 병술년에 내가 대량에 있을 때에 온역이 몹시 유행해서 사민이 많이 죽었다. 그 병증은 오한이 나고 몹시 열이 나며 머리, 얼굴,

- 8)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三統」 中風 關格咽喉癰疽瘧疾諸般天行之病 無論老少壯年 命脉在牢獄中分者 有醫藥救急則源源得生 無醫藥救急則箇箇斷死...
- 9)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病變 第六統」 中風 關格 咽喉 癰疽 諸般急病 時刻易失 速鍼藥之 猛捷者必中之...
- 10) 『東武遺稿』 「病症各論」 咽喉病 生附子含口 則妙也.
- 11) 『東醫四象新篇』 「四象辯論」 少陰人有咽喉證其病太重而爲緩病也
- 12) 『東醫四象新篇』 「四象劑方」 桔梗黃芩湯 治咽喉症

- 13)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 咽喉痛 當用獨蔘官桂理中湯
- 14)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 嘗見 少陰人 咽喉痛 經年不愈 有醫 教以服金蛇酒 即效
- 15)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朱肱曰 陽毒 面赤斑 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 1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 咽喉痛亦少陰證之屬也
- 17) 『東醫四象新篇』 「四象經驗」 少陰人 咽喉痛 經年不愈 服 金蛇酒 即效
- 18) 『東醫四象新篇』 「四象劑方」 葛根解肌湯 治陽毒面赤斑斑 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 19) 『東醫四象新篇』 「四象劑方」 金蛇酒 治咽喉痛 釀酒服
- 20) 『東武遺稿』 「少陽危症」 少陽大人 脈洪實而數 或咽喉痛 或屢生瘡疽頭面胸膈 風熱大盛 則以涼膈散 或防風通聖散 預防之可也 若緩置之 則恐成他病而瀆死也.

목덜미, 뺨 등이 붉게 부으며 咽喉腫痛하고 의식이 혼탁한 것이었다<sup>21)</sup>..."라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4</sup> 少陽人 藥方 중 輕粉丸의 설명에서 "咽喉腫痛한 것, 눈병, 코막힘, 가슴, 배가 막히고 답답한 것, 痰과 火가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증세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sup>22)</sup>..."라 하였다.

『東醫四象新篇』<sup>13</sup>에서 "太陰人이 瘟疫에 걸렸는데 그 증은 오한이 나고 열이 몹시 심하며 머리, 얼굴, 뺨, 목덜미가 별장게 부으며 咽喉腫痛하고 의식이 혼미하였다. 二聖救苦丸을 한 번 먹었더니 곧 땀이 났다<sup>23)</sup>."고 하였다.

5) 咽喉腫을 언급한 조문

『東武遺稿』<sup>5</sup>에서 "牛蒡子는 맛이 매운지라 風邪가 긴 것을 疏散시키고 頭面目齒咽喉腫을 낮게 하며 피부의 창양과 근골의 경련을 치료하고 中氣를 보하며 갈증을 멈추고 消渴과 壅滯된 것을 다스리네<sup>24)</sup>."라 하였다.

6) 纏喉風을 언급한 조문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背癰, 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病 등은 병이 든 때에 벌써 위험한 증세가 된 것이고<sup>25)</sup>..."라 하였고, "少陽人이 안으로 咽喉病이 나고 밖으로 목과 뺨이 붓는 것을 纏喉風이라고 하는데, 2~3일 내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가장 급하다<sup>26)</sup>..."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纏喉風, 脣腫, 背癰, 腦疽는 병이 든 때부터 이미 위험한 증

이 된 것이며<sup>27)</sup>..."라 하였고, "少陽人이 안으로 咽喉病이 나고 밖으로 목과 뺨이 붓는 것을 纏喉風이라고 하는데 2~3일 안에 사람을 죽이니 최고로 급하다<sup>28)</sup>..."라 하였고, 水銀熏鼻方에 대한 설명 중 "纏喉風과 脣腫에는 반드시 써야할 약이지만 인후이상의 얼굴, 눈, 코, 입의 병에는 1개의 심지에 불을 붙여서 코에 쏘이면 그 효과가 귀신처럼 뛰어나다<sup>29)</sup>..."고 하였다.

『東醫四象新篇』<sup>13</sup>에서 "少陽人이 안으로 咽喉病이 생기고 밖으로 목과 뺨이 붓는 것을 纏喉風이라고 하는데, 2~3일 내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가장 급하다<sup>30)</sup>..."고 하였다.

7) 喉痺을 언급한 조문

『東醫壽世保元』<sup>11</sup>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사계절 고르지 않은 기를 감축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痰涎이 잔뜩 성하며 煩熱이 나고, 머리와 몸이 아프며 오한이 나고, 열이 나며 목이 뻣뻣하고, 눈알이 아프며 혹은 음식은 평상시와 같고 起居도 여전하다가, 심하면 말을 못하며 혹은 눈이 붉고, 입이 험려 뺨에 종기가 나고 喉痺가 생기며<sup>31)</sup>..."라 하였다.

『東武遺稿』<sup>5</sup>에서 "龍腦는 맛이 매운지라 目痛과 喉痺, 狂躁症과 妄語症을 치료하는 참으로 좋은 약이니라<sup>32)</sup>."라 하였고, "蟒蝮는 맛이 짜고 성질이 성질이 따듯하며 뽕나무에 사는 것을 잡아 말리는데, 瘀血과 經閉, 옆구리가 단단한 것을 치료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며 汗을 點滴하면 腎膜을 치료하고 喉痺를 열리게 하며 나무에 찢려

21)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萬曆丙戌 余寓大梁 瘟疫大作 士民多斃. 其證 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腫痛 昏憤  
 2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少陽人 藥方」 咽喉腫痛 眼病 鼻塞 胸腹痞悶 痰火走注之症 皆可用之  
 23) 『東醫四象新篇』 「四象經驗」 太陰人 瘟疫其證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腫痛 昏憤 二聖救苦丸 一服即汗 一汗即愈  
 24)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牛蒡子 辛疏風摧 頭面目齒咽喉腫 皮膚瘡瘍筋骨攣 補中止渴消渴壅 鼠黏子又曰惡貫  
 25)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背癰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 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證也  
 26)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泛論」 少陽人 內發咽喉外腫項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 殺人最急

27)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纏喉風脣腫背癰腦疽 受病之日 已爲險證也  
 2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 泛論」 少陽人病 內發咽喉而外腫項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殺人最急  
 29)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纏喉風脣腫 必用之藥而 咽喉以上面目鼻口之病 用一炷熏鼻則功效如神  
 30) 『東醫四象新篇』 「四象經驗」 少陽人 內發咽喉外腫項頰 謂之纏喉風 二三日內殺人最急  
 31)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  
 32)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龍腦味辛 目痛喉痺 狂燥妄語 眞爲良劑

서 생긴 癰瘡에는 짓찧어서 붙이느니라<sup>33)</sup>."라 하였다.

#### 8) 乳蛾와 咽喉 諸症을 언급한 조문

乳蛾에 대해서는 『東醫四象新篇』<sup>13)</sup>의 「東醫四象用藥彙分」과 「四象劑方」에서 四象人別 처방 중 少陰人의 赤巳煎, 獨蓼八物湯, 鎮陰膾, 溫白元에서 언급하였고, 少陽人의 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 甘遂天一丸, 水銀薰鼻方, 輕粉乳香沒藥丸에서 언급하였으며, 태음인의 熱多寒少湯, 大承氣湯, 如神炷, 太陰調胃湯加升麻白芷에서 언급하였다.

咽喉 諸症에 대해서는 『東醫四象新篇』의 「東醫四象用藥彙分」<sup>13)</sup>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四象人別 治方 중 乳蛾의 治方과 거의 같으나 太陰人의 治方 중 大承氣湯이 제외되었다.

#### 9) 咽喉疾患의 의미

『東醫壽世保元』<sup>11)</sup>,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4)</sup>, 『東醫四象新編』<sup>13)</sup>, 『東武遺稿』<sup>5)</sup>에서 咽喉疾患에서는 咽喉病, 咽喉證, 咽喉痛, 咽喉腫痛, 咽喉腫, 纏喉風, 喉痺, 乳蛾, 咽喉 諸症으로 다양하게 언급하였다.

咽喉病과 咽喉證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상의 언급이 없었고, 咽喉病과 咽喉證이 발생하면 病證이 重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咽喉病과 咽喉證은 病證의 輕重이나 豫後를 알 수 있는 지표로 특정한 질환이 아닌 咽喉에 발생한 하나의 질병군으로 생각된다.

陽毒의 증상 중 咽喉痛을 언급하였고, 瘟疫의 증상 중 咽喉腫痛을 말하였고, 牛蒡子의 主治 중 頭面目齒咽喉腫을 낫게한다고 하면서 咽喉腫을 언급하였고, 溫病에서 病證이 심해져 喉痺가 발생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咽喉痛과 咽喉腫痛, 咽喉腫, 喉痺는 각각 咽喉에 나타나는 개별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3) 『東武遺稿』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蜻螻鹹溫在桑枯 瘀閉脇堅不可無 汁點眼翳開喉痺 木刺癰瘡碎搗敷

纏喉風은 少陽人에게서 咽喉病이 생긴 후에 목과 뺨이 붓는 병이라고 말하였고, 纏喉風과 咽喉病 모두 위험한 병증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纏喉風은 咽喉病이 심해져 발생한 특정한 질환일 것으로 생각된다. 乳蛾는 『東醫四象新篇』 「東醫四象用藥彙分」<sup>13)</sup>의 咽喉部에서 咽喉諸證과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과 「四象劑方」에서 治乳蛾라 하여 乳蛾의 治方을 따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乳蛾는 咽喉의 전반적인 病證과 다른 특정한 질환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纏喉風과 乳蛾는 咽喉에 생기는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의 病理

### 1) 少陰人

『東醫壽世保元』<sup>11)</sup>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少陰人은 咽喉證이 있으면 그 병이 대단히 중하면서도 장기적 질환으로 변하니 등한히 보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蓼桂八物湯을 쓰며 혹은 노루의 간이나 또는 金砂酒를 쓸 것이다."라 하여 少陰人의 咽喉證을 重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sup>11)</sup>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에서 "三陰病이 깊어지면 반드시 변하여 陰毒이 되는 것이니, 그 증상은 사지가 쭈뼛하며 구토하며 설사하되 갈증은 없고, 몸을 구부려 누우며 심하면 인후가 아프며 잔말을 하며...<sup>34)</sup>"라 하여 少陰人의 咽喉痛을 裏寒病의 太陰證 陰毒에서 언급하였고,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少陰病에 걸린 환자가 목구멍이 아프면 半夏散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sup>35)</sup>."라고 하였으며, "...咽喉痛은 또한 少陰證의 등속이다<sup>36)</sup>."라 하여 少

34)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李挺曰 三陰病深 必變爲陰毒 其證 四肢厥冷 吐利不渴 靜澀而臥 甚則咽痛鄭聲...

35)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陰人 內膈胃病論」 少陰病咽中痛 宜半夏散

36)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膀胱大腸病篇尾泛論」 少陰人 瘧疾亦熱畜膀胱之屬也. 吐血亦脾約之屬也. 咽喉痛亦少陰證之屬也.

陰人 少陰病의 범주에서도 언급하였다.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咽喉痛에 獨蔘官桂理中湯<sup>37)</sup>, 金蛇酒<sup>38)</sup>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獨蔘官桂理中湯은 少陰人 裏寒病의 처방인 官桂附子理中湯의 변방<sup>14)</sup>인데, 官桂附子理中湯은 少陰證의 주요 治方이므로 少陰人의 咽喉痛을 少陰證의 범주에도 속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少陰人의 咽喉證을 重한 病證으로 보았으며, 咽喉痛은 胃氣虛弱하여 발생한<sup>15)</sup> 裏寒病의 太陰證 陰毒과 少陰證의 범주에서 보았다.

## 2) 少陽人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背癰, 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病 등은 병이 든 때에 벌써 위험한 증세가 된 것이고<sup>39)</sup>..."라 하였고,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는 에서 "纏喉風, 脣腫, 背癰, 腦疽는 병이 든 때부터 이미 위험한 증이 된 것이 며<sup>40)</sup>..."라 하였으며, "얼굴, 눈, 입, 코, 인후, 치아의 병은 중증증이 변한 증상이고<sup>41)</sup>..."이라 하였고, 또한 『東醫壽世保元』<sup>11</sup>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는 "少陽人이 안으로 咽喉病이 나고 밖으로 목과 뺨이 붓는 것을 纏喉風이라고 하는데, 2-3일 내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가장 급하다<sup>42)</sup>..."라 하여 少陽人의 裏熱病의 危險證에서 咽喉病과 纏喉風을 언급<sup>15)</sup>하고 있다. 또한 『東武遺稿』<sup>5</sup>에서 "少陽人 어른이 脈이 洪, 實하면서 數하고 혹은 咽喉가 아프며 혹은 자주 머리와 얼굴, 胸膈에 癰疽가 생기고 風熱이 크게 盛하면 涼膈散 혹은 防風通聖散을 써서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만일 느슨하게 방치해두면 아파

도 다른 병을 일으켜 거의 죽게 될 것이다<sup>43)</sup>."라 하여 少陽人의 咽喉痛을 裏熱病의 危症으로 보았다.

少陽人의 咽喉病과 纏喉風, 咽喉痛을 裏熱病의 淸陽이 頭面四肢까지 순조롭게 상승하지 못하지 발병한<sup>16)</sup> 胸膈熱證의 범주에서 볼 수 있으며, 모두 胸膈熱證의 危險證으로 보았고, 纏喉風은 咽喉病이 생긴 후 목과 뺨이 붓는 병으로 보아서 咽喉病이 심해진 양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 3) 太陰人

太陰人의 咽喉疾患에 대해서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주공이 말하기를, 陽毒은 얼굴이 붉고 아롱아롱한 비단 무늬와 같은 발진이 돋으며 咽喉痛하며, 고름과 피를 뱉는다<sup>44)</sup>..."라 하였고, "萬曆 丙戌年에 내가 大梁에 있을 때에 溫疫이 몹시 유행해서 士民이 많이 죽었다. 그 병증은 오한이 나고 몹시 열이 나며 머리, 얼굴, 목덜미, 뺨 등이 붉게 부으며 咽喉腫痛하고 의식이 혼탁한 것이었다. 내가 한 비방을 발명하니, 처방명은 二聖球苦丸이다<sup>45)</sup>..."이라 하여, 太陰人의 咽喉痛 및 咽喉腫痛에 대해 말하였고, "사계절 고르지 않은 기를 감축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痰涎이 잔뜩 성하며 煩熱이 나고, 머리와 몸이 아프며 오한이 나고, 열이 나며 목이 뻣뻣하고, 눈알이 아프며 혹은 음식은 평상시와 같고 起居도 여전하다가, 심하면 말을 못하며 혹은 눈이 붉고, 입이 헐며 뺨에 종기가 나고 喉痺가 생기며<sup>46)</sup>..."라 하여 喉痺에 대해 언급하였다.

太陰人의 咽喉痛 및 咽喉腫痛과 喉痺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는 表寒病의 表之裏病

37)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 咽喉痛 當用獨蔘官桂理中湯.

38)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 嘗見 少陰人 咽喉痛 經年不愈 有醫 教以服金蛇酒 卽效 金蛇酒卽金色黃章蛇釀酒者也

39)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背癰腦疽 脣腫 纏喉風 咽喉 等病 受病之日 已爲危險證也

40)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纏喉風脣腫背癰腦疽 受病之日 已爲險證也

41)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面目口鼻咽喉牙齒之病則 中消之變證也

42)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泛論」 少陽人 內發咽喉外腫項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 殺人最急

43) 『東武遺稿』 「少陽危證」 少陽大人 脈洪實而數 或咽喉痛 或屢生瘡疽頭面胸膈 風熱大盛 則以涼膈散 或防風通聖散 預防之可也 若緩置之 則恐成他病而瀆死也.

44)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朱肱曰 陽毒 面赤斑 斑如錦紋 咽喉痛 唾膿血

45)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萬曆丙戌 余寓大梁 瘟疫大作 士民多斃 其證 增寒壯熱 頭面項頰赤腫 咽喉腫痛 昏憤 余發一秘方 名二聖救苦丸

46)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感四時不正之氣 使人 痰涎壅盛 煩熱 頭疼身痛 增寒壯熱 項強睛疼 或飲食如常 起居依舊 甚至聲啞 或赤眼口瘡 大小腮腫 喉痺

의 범주에서 보았으나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裏熱病의 燥熱證 溫病의 범주로 보았는데, 이는 太陰人의 溫病은 外感으로 인해서 발병하였기에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外感腦顛病에 해당하는 病證이었으나 발생기전이 肝熱大盛 肺燥太枯하는 기전으로 病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肝受熱裏熱病으로 옮겨졌다<sup>17</sup>. 태음인의 咽喉痛 및 咽喉腫痛과 喉痺는 外感으로 인해 肝熱大盛 肺燥太枯의 기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咽喉腫痛 및 喉痺는 의식이 혼탁하거나 심하면 말을 못할 정도의 증상을 같이 보이므로, 비교적 重한 양태의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 4) 太陽人

太陽人의 咽喉疾患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음식물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에 방해하는 바가 있는 것을 噎이라고 말하며, 안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데에 막는 바가 있는 것을 膈이라고 말하며<sup>47)</sup>..."라 하였고, 『東醫寶鑑』<sup>2</sup>에서는 "열과 격에는 각각 5가지가 있다. 5가지 膈이라는 것은 憂膈, 恚膈, 寒膈, 熱膈, 氣膈이다. 心과 脾의 사이에 병이 있어서 위아래가 통하지 않거나 목구멍에 무엇이 멎혀 있어 막아 거리게 하는 것 같으며 토하려고 하여도 나오지 않고 삼키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은 氣가 물리고 痰이 멎혔기 때문이다. 5가지 噎이라는 것은 憂噎, 食噎, 勞噎, 氣噎, 思噎을 말하는데 이것은 음식이 갑자기 걸려서 내려가지 않고 도로 올라오는 것이다.<sup>48)</sup>"라 하여 음식물이 咽喉에 걸려 잘 내려가지 않고 방해받는 증상으로 볼 때, 太陽人의 咽喉疾患을 意強而操弱하여 나타난 噎膈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47)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內觸小腸病論」 食物自外入 而有所妨碍 曰噎 自內受 而有所拒格 曰膈

48) 『東醫寶鑑』 「雜病 嘔吐」 噎膈有五 五膈者 憂恚寒熱氣也在心脾之間 上下不通 或結於咽喉 時覺有所妨碍 吐之不出 嚥之不下 由氣鬱痰結 而然 五噎者 憂食勞氣 思也 飲食卒然阻滯 而不下 反胃也 膈也 噎也 受病皆同 <醫鑑>

### 3.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의 치료

#### 1) 少陰人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少陰人의 咽喉痛을 太陰證 陰毒과 少陰證의 범주에서 獨參官桂理中湯<sup>49)</sup>, 金蛇酒, 蔘桂八物湯을 治方하였고,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는 少陰病으로 생각하여 半夏散을 치료 처방으로 사용하였다.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用藥彙分」<sup>15</sup>에서는 少陰人 乳蛾와 咽喉 諸症에 赤蛇煎, 獨參八物湯<sup>50)</sup>, 鎮陰膾 溫白元<sup>51)</sup>을 治方으로 삼았으며, 그 밖에 「四象劑方」에서는 芎歸蔥蘇理中湯<sup>52)</sup>을 咽喉를 치료하는 治方으로 삼았다.

주로 溫裏하는 약물이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暖之氣를 중심으로 한 內服藥 위주의 치료로 볼 수 있었다.

#### 2) 少陽人

少陽人의 咽喉病, 纏喉風, 咽喉痛은 裏熱病의 범주로 보았으며, 咽喉病 및 纏喉風에 대해서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輕한 것은 涼膈散火湯<sup>53)</sup>, 陽毒白虎湯<sup>54)</sup>을 쓰며, 重한 것에는 水銀熏鼻方<sup>55)</sup>을 治方으로 삼았고,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는 清涼散火湯<sup>56)</sup>, 防風通聖散<sup>57)</sup>, 陽毒白虎湯<sup>58)</sup>과 水銀熏鼻方<sup>59)</sup>을 治方으로 언급하

49) 人蔘 32g, 白朮, 乾薑炮, 官桂 各8g, 白芍藥, 陳皮, 甘草灸 各4g

50) 人蔘 48g, 黃芪, 白朮, 白芍藥, 當歸, 陳皮, 灸甘草 各 4g, 生薑 3片, 大棗 2枚

51) 川芎(炮) 100g, 吳茱萸, 乾薑, 肉桂, 川椒, 赤茯苓, 厚朴, 人蔘, 巴豆霜 各 20g

52) 『東醫四象新編』 「四象劑方」 治太陰 陰毒病, 乾霍亂, 臟厥, 陰盛陽虛, 咽喉, 太陰少陰陰危者, 人蔘 12g, 白朮 乾薑炮 官桂 各8g, 白芍藥 陳皮 灸甘草 各4g, 附子炮 4-8g 加川芎當歸蔥白蘇葉

53) 生地黃 忍冬藤 連翹 各8g, 山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 各4g

54) 石膏 20g 或 40g, 生地黃 16g, 知母 8g 荊芥 防風 牛蒡子 各4g

55) 黑鉛, 水銀 各 4g, 朱砂, 乳香, 沒藥 各 2g, 血竭, 石雄黃, 硫黃 各 1.2g

56) 忍冬藤 16g, 苦蔘 8g, 生地黃 覆盆子 薄荷 山梔子 防風 石膏 各4g, 荊芥 牛蒡子 各2g

57) 滑石 生地黃 各8g, 防風 石膏 各4g, 羌活 獨活 柴胡 前胡 薄荷 荊芥 牛蒡子 山梔子 各2g

58)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內觸大腸病論」 癰疽強中之病則 中消之危證也. 治法宜早 宜

고 있다.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4</sup>에서 咽喉을 치료하는 治方으로 玄參敗毒散<sup>60</sup>, 甘遂天一丸<sup>61</sup>을 삼았고, 輕粉丸<sup>62</sup>을 咽喉腫痛을 치료하는 治方으로 삼았으며,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用藥彙分」<sup>15</sup>에서는 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 甘遂天一丸<sup>63</sup>, 水銀薰鼻方, 輕粉乳香沒藥丸<sup>64</sup>을 乳蛾 및 咽喉 諸證의 治方으로 삼았고, 그 외 「四象劑方」에서 單白虎湯<sup>65</sup>과 加味散火湯<sup>66</sup>을 인후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삼았다. 『東武遺稿』에서는 咽喉痛에 涼膈散 및 防風通聖散을 治方<sup>67</sup>으로 삼았다.

주로 清熱藥을 위주로 처방이 구성되는 것으로 볼 때, 少陽人의 咽喉病, 纏喉風, 咽喉痛의 치료는 주로 少陽人의 陰清之氣를 도와주는 內服藥 위주이며, 纏喉風에는 水銀薰鼻方을 사용하여 薰鼻하는 外治法도 함께 사용하였다.

3) 太陰人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太陰人의 咽喉腫痛을

急於上消中消 不可差緩太晚於下消癰疽強中 宜用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 必戒哀怒斷酒色.

- 59)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少陽人 膀胱大腸病篇 尾泛論」 少陽人病 內發咽喉而外腫項頰者 謂之纏喉風 二三日內殺人最急 又上唇人中穴左右逼近處一指許發腫 雖微如粟粒 亦危證也. 此二證 始發而輕者 當用 陽毒白虎湯 三四服以通大便 經日而重者 當用 水銀薰鼻方 一炷薰鼻 倉卒無薰鼻藥則 當用輕粉末一分三厘 乳香沒藥末各五分 和勻糊丸一服盡.
- 60)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藥方一統」 敗毒散 少陽外感 本方 加 玄參 一錢 名曰 玄參敗毒散 治咽喉
- 61)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藥方一統」 甘遂天一丸 治上焦咽喉 中焦暑證 下焦痢疾 小兒驚風 大人胸痞 凡大便不快者 皆可用之
- 62)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藥方一統」 輕粉丸 治痺病...咽喉腫痛, 乳香 沒藥 各12g, 寒水石, 石雄黃, 各8g, 輕粉 4g 甘遂 2g 或 4g
- 63) 감수가루 4g, 경분가루 0.4g
- 64) 輕粉 0.6g, 乳香, 沒藥, 甘遂 各 2g
- 65) 『東醫四象新編』 「四象劑方」 治熱多寒少 便秘流注 陽毒咽喉 黃疽及面目口鼻牙齒之病, 石膏, 生地黃 各 16g, 知母 8g
- 66) 『東醫四象新編』 「四象劑方」 治咽喉, 滯崇 加苦麥三錢, 眼疾 加黃栢二錢, 積滯腹痛 加苦麥三錢
- 67) 『東武遺稿』 「少陽危症」 少陽大人 脈洪實而數 或咽喉痛 或屢生瘡疽頭胸膈 風熱大盛 則以涼膈散 或防風通聖散 預防之可也 若緩置之 則恐成他病而瀆死也.

二聖救苦丸<sup>68</sup>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며, 咽喉腫痛과 喉痺에 대해 皂角大黃湯<sup>69</sup>, 葛根承氣湯<sup>70</sup>을 治方<sup>71</sup>으로 삼았다. 『東醫四象新編』 「東醫四象用藥彙分」<sup>15</sup>에서 咽喉 諸症에는 熱多寒少湯<sup>72</sup>, 如神柱<sup>73</sup>, 太陰調胃湯加升麻白芷(升芷調胃湯)<sup>74</sup>을 治方으로 삼았으며, 乳蛾에는 咽喉 諸症의 治方에 大承氣湯<sup>75</sup>을 추가로 삼았고, 그 외 「四象劑方」에서 咽喉痛에 葛根解肌湯<sup>76</sup>을 治方으로 삼았으며, 咽喉를 치료하는 治方으로 桔梗黃芩湯<sup>77</sup>을 삼았다.

주로 大黃 등이 처방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太陰人의 咽喉腫痛과 喉痺의 치료는 주로 太陰人의 呼散之氣를 도와주는 內服藥 위주이나 如神柱로 薰鼻하는 外治法도 사용하였다.

4) 太陽人

太陽人의 咽喉疾患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噎膈의 범주에 속한다 생각할 수 있으며 治方으로 吸聚之氣를 돕는 獼猴藤植腸湯<sup>78</sup>을 삼았다.

III. 考 察

咽喉에 대해 『靈樞』 「憂恚無言編」<sup>18</sup>에서는 "咽喉는 水穀의 길이다<sup>79</sup>..."라고 하였으며, 『素問』 「太陰陽明篇」<sup>19</sup>에서는 "喉는 天氣를 主하

- 68) 大黃 160g, 豬牙 조각 80g
- 69) 升麻 葛根 各12g, 大黃 皂角 各4g
- 70) 葛根 16g 黃芩 大黃 各 8g, 桔梗 升麻 白芷 各4g
- 71)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頭面項頰赤腫者 當用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
- 72) 葛根 16g, 黃芩, 藥本 各8g, 蘿菴子, 桔梗 升麻 白芷 各4g
- 73) 大黃, 藥本, 升麻, 皂角, 麻黃 各 4g
- 74) 薏苡仁 乾栗 各12g, 蘿菴子 8g 五味子 麥門冬 石菖蒲 桔梗 麻黃 各4g 加 升麻, 白芷
- 75) 大黃 16g, 厚朴 枳實 芒硝 各8g
- 76) 『東醫四象新編』 「四象劑方」 治陽毒 面赤班班 如錦紋 咽喉痛 唾濃血, 葛根 12g, 升麻 8g, 黃芩 杏仁 各 6g, 酸棗仁(炒) 桔梗 大黃 白芷 各 4g
- 77) 『東醫四象新編』 「四象劑方」 治咽喉症, 桔梗 40g, 黃芩, 升麻, 白芷, 麻黃, 藥本, 竹茹 各 8g
- 78) 獼猴桃 16g 木瓜 葡萄根 各8g, 蘆根 櫻桃肉 五加皮 松花 各4g, 杵頭糠 半匙
- 79) 『靈樞』 「憂恚無言編」 咽喉者, 水穀之道也...

고, 咽은 地氣를 주관한다<sup>80)</sup>..."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東醫寶鑑』<sup>2)</sup>에서는 "咽은 胃와 연결되어 있고, 喉는 肺氣가 통하는 곳이다. 咽으로 음식을 넘기고 喉로 숨을 쉰다. 이치는 같지만 기능이 다르다<sup>81)</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咽候疾患의 종류와 원인에 대하여 『東醫寶鑑』<sup>2)</sup>에서는 單乳蛾, 雙乳蛾, 單喉閉, 雙喉閉, 纏喉風, 急喉痺, 懸雍垂, 梅核氣, 尸咽, 穀賊, 骨鯁, 咽痛, 咽瘡 등이 있다<sup>82)</sup>고 언급하고 있으며, "咽候病은 모두 다 火에 속한다<sup>83)</sup>."고 하였다. 또한 『醫學心悟』<sup>3)</sup>에서는 "咽候病 중 熱을 낀 것이 10 중 6, 7이고, 寒을 낀 것이 10 중 2, 3으로, 風寒包火로 인한 것은 10 중 8, 9이다<sup>84)</sup>."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臟腑論」<sup>11)</sup>에서 "肺의 위치는 추 아래, 등 위이고, 胃脘의 위치는 턱 아래, 가슴 위에 있으므로 등과 가슴 위 이상을 上焦라 하고<sup>85)</sup>..."라고 하여, 上焦의 부위는 전면으로는 안면을 제외한 턱밑에서 턱과 목이 만나 주름이 잡히는 부위인 함하부터 胸部가 시작되는 지점 위인 鎖骨上緣까지 부위로 보아 咽候를 또한 上焦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sup>20)</sup>.

咽候疾患에 대해서 『東醫壽世保元』<sup>11)</sup>,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4)</sup>, 『東醫四象新編』<sup>13)</sup>, 『東武遺稿』<sup>5)</sup>에서 咽候病, 咽候證, 咽候痛, 咽候腫痛, 咽候腫, 纏喉風, 喉痺, 乳蛾, 咽候 諸症으로 다양하게 언급하였으나, 四象醫學에서 咽候疾患의 의미는 질병군, 증상, 특정 질환으로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咽候病과 咽候證은 咽候에 발생한 하나의 질병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咽候病과 咽候證이 발생하면 重證으로 여겨는 것으로 볼 때, 病證의 輕重이나 豫後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다.

咽候痛, 咽候腫痛, 咽候腫, 喉痺는 咽候에 나타나는 증상의 의미로, 纏喉風, 乳蛾는 咽候에 발생한 특정한 질환의 의미로 생각된다.

四象醫學에서 咽候疾患의 病理는 四象人別로 달리 생각하였다.

少陰人의 경우, 『東醫壽世保元』<sup>11)</sup>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少陰人의 咽候證을 重한 病證으로 언급하였으며, 咽候痛을 太陰證의 陰毒과 少陰證의 범주에서 보았고, 病因은 胃氣 虛弱하여 발생한다고 보았다<sup>15)</sup>.

少陽人의 咽候病, 咽候痛과 纏喉風은 『東醫壽世保元』<sup>11)</sup>과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모두 裏熱病의 胸膈熱證의 범주로 보았으며, 裏熱病의 危險證으로 언급하였고<sup>15)</sup>, 病因은 淸陽이 頭面四肢까지 순조롭게 상승하지 못하지 발병하는 것으로 보았다<sup>16)</sup>.

太陰人의 咽候痛, 咽候腫痛과 喉痺를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 裏熱病의 燥熱證 溫病의 범주에서 언급하였으며,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는 表之裏病에서 언급하였다. 太陰人의 溫病은 外感으로 인해서 발병하였기에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sup>12)</sup>에서 外感腦顛病에 해당하는 病證이었으나 발생기전이 肝熱大盛 肺燥太枯하는 기전으로 그 病證이 발생하여 개체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東醫壽世保元』<sup>11)</sup>에서는 肝受熱裏熱病으로 옮겨졌다<sup>17)</sup>. 따라서 太陰人 燥熱證 溫病의 咽候腫痛, 咽候痛과 喉痺는 外感으로 발생하였지만, 의식이 혼탁하거나 심하면 말을 못할 정도의 증상을 보여, 단순한 外感으로 생긴 가벼운 증상이 아닌 外感으로 인해 肝熱大盛 肺燥太枯의 기전을 거친 비교적 重한 상태의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太陽人은 구체적인 咽候疾患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裏病인 噎膈의 咽候部가 막혀 음식물이 들어오는 데에 방해를 받는 증상이 咽候疾患과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어서 意強而操弱하여 발생한 噎膈의 범주에 속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1)

80) 『素問』 「太陰陽明篇」故喉主天氣, 咽主地氣...  
 81) 『東醫寶鑑』 「外形篇 咽候」咽者胃之系喉者肺氣之所通咽以嚥物喉以候氣理一而分殊也<直指>  
 82) 『東醫寶鑑』 「外形篇 咽候」咽候之病有單乳蛾雙乳蛾單喉閉雙喉閉纏喉風急喉痺懸雍垂梅核氣尸咽穀賊骨鯁咽痛咽瘡  
 83) 『東醫寶鑑』 「外形篇 咽候」咽候之病皆屬火  
 84) 『醫學心悟』 咽候之病, 挾熱者十之六、七, 挾寒者十之二、三, 而風寒包火者, 則十中之八、九.  
 85) 『東醫壽世保元』 「臟腑論」肺部位 在頷下背上 胃脘部位 在頷下胸上故 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Talbe 1. Throat Disease's Class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咽喉病의 範疇	
少陰人	咽喉證, 太陰證 陰毒의 咽喉痛, 少陰證
少陽人	胸膈熱證의 咽喉病, 咽喉痛 纏喉風
太陰人	燥熱證 溫病의 咽喉腫痛, 咽喉痛과 喉痺
太陽人	噎膈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의 治療는 咽喉라는 부위에 나타난 증상을 위주로 治療하기 보다는 사람에 대한 全一的 觀點에서 각각의 保命之主를 다스리는 방향에서 治療하였기에, 기존 證治醫學에서 인후질환에 중심을 두어서 清熱藥이나 解表藥 등을 주로 쓴 것<sup>6,8,9</sup>과 차이가 있었다.

少陰人의 경우, 少陰人 咽喉痛의 治方으로 獨蔘官桂理中湯, 金蛇酒, 蔘桂八物湯, 半夏散을 삼았고, 少陰人의 乳蛾와 咽喉 諸症에 赤蛇煎, 獨蔘八物湯, 錮陰膾을 治方으로 삼았는데, 그 밖에 咽喉을 治療하는 治方으로 芎歸蔥蘇理中湯을 삼았다. 주로 溫暖之氣를 돕는 溫裏한 藥물을 위주로 治方이 구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少陽人의 咽喉病 및 纏喉風에 대해서 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 水銀熏鼻方, 清涼散火湯, 防風通聖散, 陽毒白虎湯을 治方으로 삼았다. 咽喉을 治療하는 治方으로 玄參敗毒散, 甘遂天一丸, 單白虎湯과 加味散火湯을 삼았고, 輕粉丸을 咽喉腫痛을 治療하는 治方으로 삼았다. 少陽人의 乳蛾 및 咽喉 諸證에는 涼膈散火湯, 陽毒白虎湯, 甘遂天一丸, 水銀熏鼻方, 輕粉乳香沒藥丸을 治方으로 삼았고, 그 외 咽喉痛에 涼膈散 및 防風通聖散을 治方으로 삼았다. 주로 陰清之氣를 돕는 清熱藥 위주의 治方을 볼 수 있으며, 水銀熏鼻方을 이용한 外치법을 볼 수 있다.

太陰人의 咽喉腫痛을 二聖救苦丸을 사용하여 治療하였으며, 咽喉腫痛과 喉痺에 대해 皂角大黃湯, 葛根承氣湯을 처방으로 삼았다. 咽喉 諸症에는 熱多寒少湯, 如神柱, 太陰調胃湯加升麻白芷(升芷調胃湯)을 治方으로 삼았으며, 乳蛾에는 咽喉 諸症의 治方에 大承氣湯을 추가로 삼았고, 그 외 咽喉痛에 葛根解肌湯을 治方으로 삼았으며,

咽喉을 治療하는 治方으로 桔梗黃芩湯을 삼았다. 呼散之氣를 돕는 藥제가 주를 이루며, 如神柱를 사용한 外治法도 볼 수 있다.

太陽人의 咽喉疾患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噎膈의 범주에 속한다 생각할 수 있으며 吸聚之氣를 돕는 治方으로 獼猴藤植腸湯을 삼았으며, 구성 藥물 중 杵頭糠은 咽喉가 막힌 것을 주로 治療하는 藥물이다<sup>86)</sup>.

#### IV. 結 論

1. 四象醫學에서는 咽喉疾患을 다양하게 언급하였고,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咽喉病과 咽喉證은 咽喉에 발생한 하나의 질병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咽喉痛, 咽喉腫痛, 咽喉腫, 喉痺는 咽喉에 나타나는 증상의 의미로, 纏喉風, 乳蛾는 咽喉에 발생한 특정한 질환의 의미로 생각된다.

2.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의 病理는 四象人別로 달리 보았다.

少陰人의 咽喉證은 重한 病證이며, 咽喉痛을 胃氣虛弱하여 발생한 太陰證의 陰毒과 少陰證의 범주로 보았다.

少陽人의 咽喉病, 咽喉痛과 纏喉風은 清陽이 頭面四肢까지 순조롭게 상승하지 못하지 발병한 裏熱病의 胸膈熱證의 범주로 보았다.

太陰人 咽喉痛, 咽喉腫痛과 喉痺는 外感으로 발생하여, 肝熱大盛 肺燥太枯의 기전을 거친 裏

86) 『東醫壽世保元』李梴曰 杵頭糠 主噎 食不下 咽喉塞 細糠 一兩 白粥清調服

熱病의 燥熱證 溫病으로 보았다.

太陽人은 직접적인 咽喉疾患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意強而操弱하여 발생한 噎膈의 범주에 속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3. 四象醫學에서 咽喉疾患에 대한 治療는 주로 咽喉疾患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全一的 觀點에서 保命之主를 돕는 治方으로 복약치료를 하였으며, 少陽人과 太陰人의 裏熱病인 경우 薰鼻하는 外治法을 사용하였다.

## V. 참고문헌

1. 金璟濬, 洪承旭, 金中鎬, 蔡炳允. 咽喉疾患에 對한 臨床의 研究. 대한외관과학회지. 1994; 7(1):177-184
2. 許浚 著. 동의보감국역위원회. 對譯 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02.
3. 程國彭 著. 對譯 醫學心悟, 정담, 서울, 2002
4. 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集文堂, 서울, 2005.
5. 李濟馬 著. 梁명무, 차광석 譯. 國譯 韓醫學大系 15 東武遺稿. 海東醫學社. 1999.
6. 金楨己. 咽喉痛에 대한 東醫學의 病理 및 臨床 治療.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6;10(2):41-48
7. 黃祐準, 金庚植. 咽喉疾患의 鍼灸治療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1988;5(1):73-83
8. 鄭彰鎬, 金允禧. 急性 喉頭炎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2005;14(1):113-128
9. 손기정, 노석선. 후비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 한의학회지. 1994; 15(1):342-358
10. 宋永鎬, 金漢星. 喉痺의 病因病機 및 鍼灸治療에 對한 文獻的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 論文集. 1997;5(2):343-362
11. 李濟馬 原著. 동의학연구소 譯. 東醫壽世保元. 여강출판사, 서울 2003:54-61, 72-265, 276-284
12. 李濟馬 原著. 김달래 編譯.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도서출판 목과 토. 2002; 67-127, 131, 136, 147-179, 187, 191-197, 287
13. 元德必 編著. 國譯 韓醫學大系 13 東醫四象新編. 海東醫學社. 1999;36, 42, 56, 65-66, 149, 188-335
14. 허만희, 송일병. 獨蔘官桂附子理中湯의 少陰人 咽喉痛 治驗例.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1): 257-258
15. 이수경, 송일병. 『東醫壽世保元』 太少陰陽人의 「病證論」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999;11(2):1-26
16.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甲午本(舊本)과 辛丑本(新本)을 중심으로 한 少陰人 病證과 少陽人 病證에 관한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62-73
17. 임진희,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태음인 병증을 중심으로 판본에 따른 병증 개념의 변화에 관한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6(1): 26-33
18.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 靈樞. 成輔社, 서울, 1980.
19. 楊維傑編. 黃帝內經譯解 素問. 成輔社, 서울, 1980.
20. 宋一炳, 洪錫喆. 東醫壽世保元의 四焦設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4;6(1):140